

襄烈公第一子叅判公諱幾派

幾

十四世

十五世

十六世

十七世

十八世

十九世

號景齋贈嘉善大夫戶曹叅判兼寶文閣提學永樂辛卯俱中生進文科丙午清州都事庚寅成吏曹正郎乙卯星州牧使階通政大夫丙寅全羅道觀察使丁卯入爲禮曹叅議李施愛亂贊畫亦多弘治癸丑三月十二日卒有文學亨于靈岩松陽祠題崔烟村存養樓詩曰榴花風罷送清香右松篋篩月影縱橫阡陌小溪長見左酒高談笑一場人南陽洪氏工曹典書師瑗女右政○配贈貞夫

居昌慎氏通政公容派家乘跋

我慎氏始祖恭獻公修는 宋나라開封府人이라 宋神宗熙寧元年高麗文宗二十二年戊申歲에 海舶을 隨하여 東來하야 文宗二十九年侍御史로 入朝하시고 九百余年이 되였다 其間族譜發刊은 舊譜를 考察한 바壬戌年耽羅譜舊丁巳年靈覺譜 後丁巳年全義譜 辛亥年龜淵譜에 이어 舊辛丑年龜山譜二十三卷大譜(庚子譜 또는壬寅譜로 도함)를 發刊하였으나 後辛丑檀紀四二九年에는 新裝四卷의 新大譜가 龜山齋에서 發刊되었다 以外各三派는 各己派譜하였으며 吾署令公派는 己卯檀紀四二七年居昌郡南下面屯山齋에서 全七卷의 派譜를 發刊하여 現在所藏하고 있다 元來族譜는 先世後孫의 世系와 分派來歷을 所載하고 先世의 行誼事蹟을 收錄하여 子孫이 世々相傳所藏하고 先世의 遺志와 遺蹟을 聯綿繼承하여 愛族心을 發揮하고 宗親間友誼를 敦篤이 하는데 龜鑑이 되는 것이다 昔日中宗反政時에 我慎氏一門에 禍故가 倉卒하여 累代先塋에 墓誌墓碣

遺蹟이未備하였고 家藏文蹟이 兵亂에 粉失되어 舊譜所載先世事
蹟이簡略한事實을想起하여볼때 現下變遷하는社會的潮流와時代
的文化感覺에接應하여 倫理道義나 崇祖觀念이 漸次解馳되어가
는現實下에서 子孫들의 教育上 譜冊發刊은 切實히 痛感되는바
此吾通政公派家乘을 發刊키로하고 舊譜에未盡한 文蹟과 遺蹟을
補完編纂하게된것은 感懷無量하다 自古로 我慎氏는 忠孝를 家是
로 삼는 바子孫들은 先世의 遺志을 본받아 國家에 忠誠함은勿論
孝友睦姍任恤六行에도 無一不備함이 없도록 銘心制行하
여修身齊家의 道를 다하여야 할것이다

甲寅孟春

後孫炳
(一名正基)
周謹跋

跋

此惟我通訓大夫司醞署令公五世孫通政公諱容派家乘也

其先世居陰石至叅議公始居加祚玄山其後子孫

又移道洞至是子姓繁衍大譜與派譜載在昭詳

卷帙浩繁奉審不便箇々人持藏不能更爲家乘

一卷爲通政公子孫者遂戶一卷式

案頭時々奉

審奠繫昭穆人倫不亂昔者老蘇氏序其

譜曰觀吾譜者孝弟之心油然而生觀此吾家乘者

孝弟之心敦宗睦族之誼油然而生此辭意宗會席

上表示宗議歸一癸丑草正單通政公墓閣望峴齋

居昌憲曰通政院源家

完了^{에서} 越明年甲寅^{하고} 剔劂^에 付^{하야} 家乘^에 完成^{되니} 雖曰家乘^{이나}

此所謂望峴譜也^라 以上大譜及派譜^에 不載^한 政公墓圖^와

獐項池內^와 陝川羅浮洞墓圖^을 添入^{하고} 玄山世蹟碑^와 碑周圍

松林撮影^{하야} 先望圖下^에 插入^{하니} 後之覽者不無其敦宗睦族

之心乎哉^아

甲寅春後孫宗大謹識